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31권 23호(가해) 2011.5.1

[묵상]



의심하는 토마스 <헨드릭 테르브루그헨, 양스트르당 국립미술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행복은
보고, 따지는 데 있지 않고
믿고, 사랑하는데 있음을.

당신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건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할 일은
이성을 움직여
이리저리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전화/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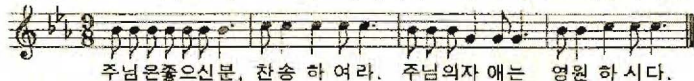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밤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로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최금옥 말찌나, 우경석 사도요한,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주 일	(연) 엄익찬 안토니오, 김나연, 권순봉 요안나, 박송희, 김시형 시릴로, 정형두 바오로, 엄은섭 도로테오, 윤홍중, 윤희중, 고준희 제임스, 정요임 안나, 최병기 요셉, 박인정, 민소에 모니카, 이분옥 안젤라, 변세연 대전안드레아, 낙태된 영혼들, 김이석 말갈리다, 김완태 다미아노, 홍관요셉
낮 미사	(생)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이덕철 루까, 백그레이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토런스 북 구역 가정들, 차민경 루시아, 송기분 수산나, 박진숙 로사, 박원수 레미지오, 안희경 크리스티나, ME 제67차 수강생들, 김지민 마리아,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2,42-47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 하 여라. 주님의 자 애는 영 원 하 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 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1,3-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요한(John) 20,19-31

영성채송 내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0	170	170
봉헌	194	194	194
성체	287	298	287
파견	327	327	327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경축함

자식을 낳기 위해 산고를 치르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전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어머니들이 다. 자신들이 사명을 실천하는 이 영웅적인 여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항상 그녀들을 지지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조장되고 방송되는 문화적인 표본들은 모성의 용기를 복돋아 주지 않는다.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훌륭하게 증언했고 계속 거증하고 있는 충실성, 정결, 희생 등의 가치들은 발전과 현대성의 미명 아래 쓸모없는 것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영웅적인 어머니들의 불굴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하느님과 그분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생명의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께서는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께 드린 선물을 보상에 주실 것이다. 진정,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재물로 바친 생명을 되돌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4)

▶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87).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증진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완수되어야 한다. 이 사랑의 봉사는 개인적인 증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사회활동과 정치적인 투신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이처럼 강하게 억누르고 있고, 흔히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현대에 이러한 사랑의 봉사는 특히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은 이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갈라 5,6)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2,14-17).

사랑의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특별한 태도가 넘쳐야 하며, 탁월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을 돌보되,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양 해야 한다. (◆계속)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이가 더 행복하다”

어제의 복음(마르 16,9-15 참조)은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혹은 확신이 안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토마스야...” 하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모님께서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내려 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혹은 성모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를 텐데...”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꿈에서도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쾰른 땅에 군사용으로 건설된 지하 동굴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동굴 속에서도 이 사람의 눈은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침묵만이 흐르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 확실함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적 계시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체험은 아니지만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토대로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이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준석토마스아퀴나스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례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P.V.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직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패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5 월

성모성월

- ◆ 병자 영성체 : 13일(금) 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성모신심미사 업습니다.

본당신부님의 북미주 사제협의회 출장관

제로 5월 성시간과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가 없습니다.

- ◆ 성모의 밤 : 11일(수) 오후 7시30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이 있습니다.
- 준비물 : 묵주, 가급적 한복착용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요셉회, 야외14처 봉헌 기금마련 음식장터 안내

- 일시 : 4월30일 특전미사후, 5월1일 낮미사후 천교장
- 메뉴 : 점심식사 콩나물무국밥 특가 \$1
- 족발, 돼지갈비, 삼겹살, 굴파전, 신도불이'꼭차'
- * 요셉회 회원들이 자매님들의 도움으로 한국 고유의 음식을 정성드려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전신자들의 참여로 즐거운 음식장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의 : 권태만 실베스텔 요셉회장 ☎(310)989-9077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구역대항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일)~15일(주일)
- 장소 : 천교장
- 경기방법 : 구역별 리그전- 단식, 복식, 혼합복식
- 참가구역 : 토런스 동, 서, 남, 북, 하버/카슨, PV 구역

- 선수구성 : 남녀 5명(여성 한분이상 꼭 참가)
- 준비물 : 구역별 탁구공과 탁구채
- 선수명단 제출 : 각 구역장이 4월30일까지 제출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성경통독 '창세기' 시작-새 수강생 초대합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전신자 대상 신규약 성경통독이 5월12일(목)부터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새수강생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2회 강의
- 강사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제8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미사시간 임시 변경 : 오전 7시30분과 오전 10 미사
- 일시 : 5월15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잔디밭
- 청팀 : 토런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근사한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4월28일 현재집계 총 148,528단

- 토런스 동구역 : 23,338단 ● 토런스 서구역 : 26,744단
- 토런스 남구역 : 11,156단 ● 토런스 북구역 : 10,880단
- 하버카슨 구역 27,970단 ● P.V.구역 : 37,437단
- 기타 : 11,003단 ▶ 총 14만8천5백28단
-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사무실)를 제대앞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2011년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연례총회 본당 신부님 참석

- 일정 : 5월2일(월)~6일(금)
- 장소 : 버지니아주 도미니칸 피정의 집(워싱턴 DC 인근)
- 이 기간중 평일미사(수,목,금)가 없습니다.
- 신부님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1일(주일) : 요셉회 야외14처조성 기금마련 음식장터
- 5월8일(주일) : 어머니날, 소공동체(김밥,떡 \$4씩)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오상	김광자	김일선	박상준	박완철
	박종선	박홍룡	반비오	신대철	엄혜은	유근대
	유희연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소영	이용식
	이정훈	장춘수	정충로	정혜영	정훈모	차병용
	최현찬	한혜숙	홍석인	이크리스		
합계 : \$4,680						
미사헌금 : \$4,885(부활성야포함) 사순애공봉투 : \$8,151						

성전헌금	고천용	권오상	김광자	김일선	박완철	박홍룡
	반비오	신대철	엄혜은	유근대	유희연	윤화경
	윤희동	이경태	이용식	장춘수	정충로	정혜영
	정훈모	차병용	최현찬	한혜숙	홍석인	
합계 : \$4,330						
감사헌금 : 정훈모 익명 한남체인도네이션 : \$360						

주일학교 소식

◆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고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신청마감 : 5월1일 * 신청비 : \$10(사진, 초)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후마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제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 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접수: 주일학교
- 참고웹사이트: www.all4godcatholic.com

남가주 소식

◆ 제1회 가톨릭청소년 성화 그리기 대회

- 주제와 제목 :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23)
- 대상 : 초중고등부의 영세받은 학생
- 응모비 : \$10 * 마감 : 5월21일
- 모낼곳 :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사무실
이혜숙 카타리나 ☎(310)953-7474
- 주최 : 남가주한인가톨릭미협, 가톨릭신문 공동

◆ 예수후원회의 1일 영성 특강

- 주제 : *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가지 여행
* 기도란 무엇인가? *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 일시 : 5월1일 오전 9시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지도신부 : 정규한 레오 예수화 신부
- 참가비 \$20(점심 포함)
- 문의 : 정 도로테아 (818)321-9505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정희 올리아 830-0106 5/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5/15(주일이)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415-0034 5/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고천용 377-6328 5/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정충로 안토니오 325-9915 5/13(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5/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323-717-7866 5/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	--

2011년 생명주일 담화문

“낙태도 살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던 ‘생명의 날’을 5월 첫 주로 변경하면서 그 명칭도 ‘생명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주교회의가 1995년 이후 16년 동안 지내온 ‘생명의 날’을 ‘생명주일’로 승격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을 수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2. 하느님께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언제나 불변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한계인 동시에,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촉구입니다.(생명의 복음, 54항 참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창세 9,5)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즉 전쟁, 살인, 낙태, 인간배아 파괴, 안락사, 고의적 자살 등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사목현장, 27항; 생명의 복음, 53항 참조).

3.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유아 살해와 낙태를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사목현장 51항).

낙태는, 생명을 돌보아야 할 부모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방어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269조는 낙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회법은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매일 1,000여 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핏덩어리요, 낙태는 일종의 혹을 떼는 수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

정권’ 또는 ‘건강권’이라고 주장하거나, 불법 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이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면서 아예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낙태 현실과 의식에는 성교육 부재, 성의 왜곡, 성 불평등, 열악한 출산 환경, 의료윤리 부재와 정부의 오랜 낙태 방조와 생명 보호 의무 소홀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는 태아의 ‘생명권’ 부정과 여성의 ‘책임’과 ‘의무’의 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낙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력의 둔화입니다.

오늘 시복되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심지어 법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징표”(생명의 복음, 58항 참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5.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곧 남녀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독립된 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수정된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도 결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참조).

6. 형제자매 여러분! 고(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연간 수십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되는 현실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땅의 반(反)생명문화를 개탄하며 생명문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생명의 수호자가 되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기를 희망합니다. 생명 수호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장봉훈 주교

